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A Structural Analysis of School-Aged Children's Well-Being and Its Related Variables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외래교수 이 희 은**

교 수 문 수 백***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Instructor : Lee, Hi-Eun

Professor : Moon, Soo-Ba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variables related to well-being. 748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iding in Gumi -City, Pohang -City and Ulsan -City in Korea completed questionnaires about well-being, ego-resilience, self-esteem,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arent attachment perceived by children. A variance-covariance matrix of this sample was analyzed using AMOS 19.0, and the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The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via SRMR, RMSEA with a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ego-resilience, self-esteem,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arent attachment were all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children's well-being. Second, children's self-esteem,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arent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ego-resilience. Third, children's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parent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self-esteem. Fourth, parent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basic psychological needs.

▲주요어(Key Words) : 안녕감(well-being),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자아존중감(self-esteem),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 부모애착(parent attachment)

I. 서 론

아동기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로 자주 이상화 되었지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65.98점으로, OECD

23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게다가 3년 연속으로 최하위 성적을 보이고 있고(염유식 등, 2011), 보건복지부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에서도 12~14세 아동의 9.8%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아동이 8.6%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아동들이 당면한 현실은 안녕감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에서 강조되고 있는 안녕감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용어로, 한 개인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 본 논문은 2012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의 일부임.

** 주 저 자 : 이희은 (E-mail : cia1976@hanmail.net)

*** 교신저자 : 문수백 (E-mail : iqmoon@hanmail.net)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그리고 자신의 기능에 대해 종합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해 스스로 내리는 평가이다(Keyes, Shmotkin, & Ryff, 2002). 삶의 질을 나타내는 안녕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학교적응이나 문제행동 등 다른 긍정적인 결과에 공헌하며, 심리적 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더한다(Park, 2005). 또한 인생이나 사물을 보는 시각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고, 한 번 숙달되면 이후에도 스스로 유지하는 속성이 있다고 한 Seligman(2002)의 주장이나 이러한 안녕감이 어떤 시점에 느끼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Harker & Keltner, 2001)에서도 아동기에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동기 안녕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의 안녕감 연구동향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전히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의 단일 차원의 도구들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Lee, & Choe, 2008). 즉 개인의 긍정적 정서와 만족이 삶의 질을 대표한다고 보는 '주관적 안녕감'이나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발달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개체로서 잘 기능하는가를 강조하는 '심리적 안녕감' 중 하나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두 가지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통합적 관점의 안녕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Keyes(2005)는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사회적 안녕감을 추가하여 통합적 관점의 안녕감 척도(Subjective Well-Being Scale: 이하 SWBS)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안녕감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안녕감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나, 욕구충족, 자존감, 인간관계 등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ang, 2008).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을 예측, 설명 그리고 통제하기 위한 원인들을 탐색하였고, 여러 관련변인들 중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과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부모애착을 관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자아탄력성이란 좌절스럽고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변화하는 환경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동적 능력이다(Block & Block, 1980).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를 밝힌 Kim, Y. H. (2010)의 연구에서 보듯이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 통제를 잘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며 대인관계

에서도 원만함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통합적 관점의 안녕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아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와 맞서서 탄력 있게 적응하고 발달해 가는 데 기여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견뎌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함과 동시에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Block & Kremen, 1996).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사회부적응 문제를 보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잘 적응한다는 것으로, 현대 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나 개인·가정변화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는 아동의 스트레스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해결을 위해 긍정심리학의 한 요소인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의미가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아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Rosenberg, 1979), Myers(1992)는 건강한 자존감은 좀 더 영구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해준다고 하였으며, Wubbolding(1998)도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 and Kim (200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과 정적상관이 있으며 삶의 의미와 이타성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에 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면 위험사건을 탄력적으로(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하나의 주요개념인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가장 좋은 예언인자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이며, 아동의 이해를 위한 필수적 과제인 자아존중감은 아동후기(11~12세경)에 접어들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송명자, 2008), 이 시기는 자아존중감 발달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조직, 재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Ryan and Deci(2000)는 개인의 안녕감 증진을 위한 기본심리욕구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즉, 기본심리욕구란 자신이 행동의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느낌인 자율성, 자신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느낌인 유능감,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 연결되고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인 관계성에 대한 욕구이다. Reis et al.(2000)의 연구와 Sheldon, Ryan and Reis (1996)의 연구

에서는 실험참가자의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수준이 매일 매일의 기분, 활력도, 그리고 자존감 등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관계에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Kim(2010)의 연구를 통해 기본심리욕구는 자아탄력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욕구충족이 좌절되면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며, 불안정한 혹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는 결과(Ryan & Deci, 2001)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의 욕구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본심리욕구가 아동의 안녕감은 물론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아동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하여 볼 수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안녕감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 유지 및 개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필수적인 요소(Sheldon & Niemiec, 2006)인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며,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기에 적합한 도구의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으로 제작된 Koestner and Veronneau(2001)의 Children's Intrinsic Needs Satisfaction Scale(이하 CINSS)를 사용하여 학령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용으로 제작된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과 CINSS가 아동의 삶의 주요한 장면에서의 기본심리욕구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일반적 기본심리욕구 척도'라는 점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한편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개인 내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또한 중요하다. 아동임상 및 발달심리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관련 요인은 아동의 안녕감 및 적응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요인 중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부모 애착의 중요성은 그 어떤 요인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o, 2008). Bowlby(1969)는 부모와 자녀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애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초기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가 전 생애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방식을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부모애착은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안녕감에 중요하며,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

녕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2010). 하지만 애착이 아동의 안녕감과 적응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들이 모두 안녕감이 낮거나 정상적인 발달에서 벗어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Park and Yoo(2003)는 가정 환경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적응 수준을 보이는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의 심리 내적인 특성을 안녕감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안녕감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소로서 안녕감에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었다. 또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으며 우울과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Verschuere & Marcoen, 2002)의 결과에서 보듯이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부모와 관련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Ryan & Deci, 2000; Wei et al., 2005). Kim(2007)는 자녀와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양육자가 자녀의 능력과 상태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성을 발전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유능감, 관계성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어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기여한다고 하여 애착과 기본심리욕구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모애착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부모애착이 아동의 안녕감은 물론, 아동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부모애착을 외생변인으로, 아동의 안녕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를 내생변인으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하여 변인들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다중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의 추정이 가능하며 관찰 또는 측정되지 못한 개념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추정의 결과와 이 추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문수백, 2009).

아동기는 인지적·정서적·사회적 측면에서 유용한 기술을 습득하여 자기(Self)를 형성하고,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인지와 정서를 자기 인성의 한 부분으로 형성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동안 학업과 입시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안녕감과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연구모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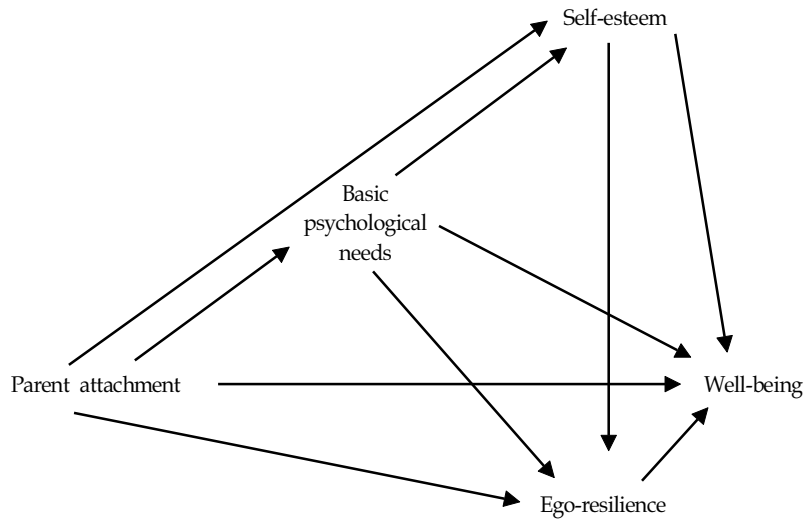


Figure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Figure 1>과 같다.

- <연구문제 1>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와 부모애착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와 부모애착은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3> 학령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부모애착은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4> 부모애착은 학령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구미, 울산과 포항에 소재하는 3개의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령기 아동이다. 학령기 아동 중 5, 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는 이 시기는 발달특징상 인지발달로 인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져 자신과 환경에 대한 평가가 명료해지고 객관적인 자아지각을 하여 자기의 정서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Montemayor & Eisen, 1977).

본 연구의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신뢰롭게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연구대상을 얻기 위해 모수치 대 피험자 수의 비율인 1:10~20의 비율적 조건(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748명의 자료를 표집하였으며, 총 연구대상 748명 중 남자 356명, 여자 392명이며, 5학년 354명, 6학년 394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안녕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녕감 척도는 Keyes(2005)의 SWBS (Subjective Well-being Scale)를 Lee et al.(2008)이 한국 상황을 고려하며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이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서적 안녕감 3문항, 스스로 성숙하고 개체로서 잘 기능하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심리적 안녕감 5문항,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잘 기능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안녕감 4문항의 세 하위요인,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정서적 안녕감의 문항은 '행복하다고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라는 식의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고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심리적 안녕감의 문항은 '학교나 동아리, 지역사회 활동(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속감을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라는 식의 스스로 성숙하고 개체로서 잘 기능하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며, 사회적 안녕감 문항은 '내가 친구들과 따뜻하고 믿음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얼마나 자주 느꼈나요'라는 식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잘 기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최근 한 달 동안 각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아동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써, '전혀 느끼지 못했다'의 1점에서 '매일같이 느꼈다'의 6점에 이르는 Likert 식 6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Brown(2006)의 CFA 측정모형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90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척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 and Kremen (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89)를 Han(2007)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 맥락이 요구하는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항의 구체적인 예로는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문항은 총 14문항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단일차원의 척도이다. 단일차원의 척도일 경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측정오차가 과대 추정되고, 부합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분석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부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수백(2009)의 제안에 따라 주어진 척도하의 문항들을 두 개 또는 세 개의 꾸러미로 묶는 문항꾸러미화 방법(item parceling method)을 사용하여 자아탄력성에 대한 14문항을 두 개의 꾸러미 속에 무작위 배치하여 탄력성1과 탄력성2라는 꾸러미변수를 자아탄력성의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자기보고용 Likert식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Brown(2006)의 CFA 측정모형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86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Eo(1998)가 번안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의 총체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의 구성개념만을 측정하는 단일차원의 척도이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문항 꾸러미화 방법(item parceling method)을 사용하여, 자존감1과 자존감2라는 꾸러미변수를 자아존중감의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총 10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한 다음, 문항 간 검사특점의 분산이 크고 문항 간 상관성이 낮고 이질

적인 것으로 나타난 8번 문항을 삭제하고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와 같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묻는 문항(1, 2, 4, 6, 7)과 '나는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와 같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묻는 문항(3*, 5* 9*, 1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산출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자기보고용 Likert 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Brown(2006)의 CFA 측정모형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83로 나타났다.

4) 기본심리욕구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Koestner and Veronneau(2001)의 Children's Intrinsic Needs Satisfaction Scale(이하 CINS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INSS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Deci et al. (2001)이 개발한 Intrinsic Need Satisfaction Scale를 토대로 Koestner and Veronneau (2001)가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나는 학교 숙제를 하는 방식(언제, 어떤 방법으로)을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 같다'는 식의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율성, '나는 집에서 무엇이든지 잘하는 것 같다'는 식의 사회적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서 효율적인 것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실행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경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유능감,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식의 타인과 접촉하고 함께하며 다른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관계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로 6문항씩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가 잘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Brown(2006)의 CFA 측정모형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89로 나타났다.

5) 부모애착 척도

부모애착은 Armsden and Greenberg(1987)의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에 기초하여 Raja, McGee, and Stanton(1992)이 개정한 IPPA-개정본(IPPA-R)을 Kim(2009)가 자신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가지 차원으로 하위요인이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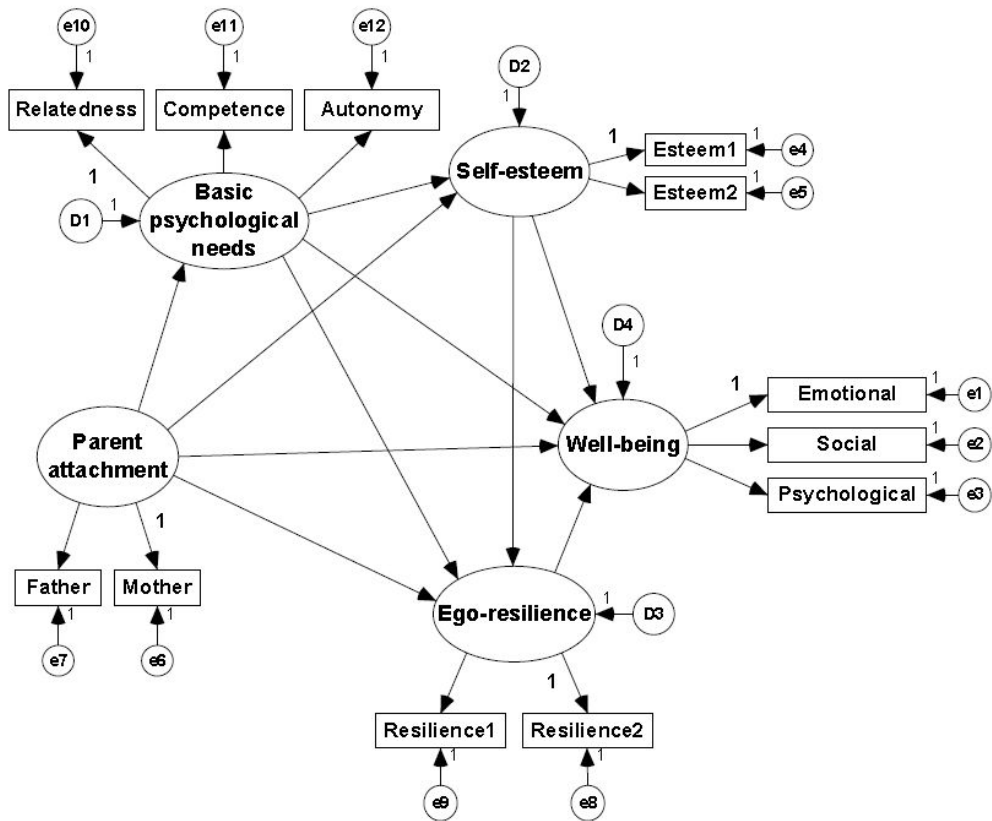


Figure 2. Proposed Structural Equation Model

요인별이 아닌 통합적 애착 정도에 초점을 두기 위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부애착과 모애착을 지표변수로 두었다. 부모애착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부모 각각 12문항씩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이며, 점수범위는 부모 각각 12점에서 4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예로는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힘든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Brown(2006)의 CFA 측정모델을 이용한 척도신뢰도 추정절차에 따라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추정한 결과 .82로 나타났다.

3. 통계적 모델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의 원인변인으로 설정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애착, 기본심리욕구,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간의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Figure 1>의 연구모델을 다음의 <Figure 2>와 같이 통계적 모델로 설정하였다. 연구모델의 각 이론변수들은 지표변수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측정되는 잠재변수로 추정하기 위해 아동의 안녕감은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을 지표변수로, 자아탄력성은 탄력성1, 탄력성2을 지표변수로, 자아존중감은 자존감1, 자존감 2을 지표변수로,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지표변수로, 그리고 부모애착은 부애착과 모애착을 지표변수로 설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19.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2. 측정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의 모델추정 가능성과 부합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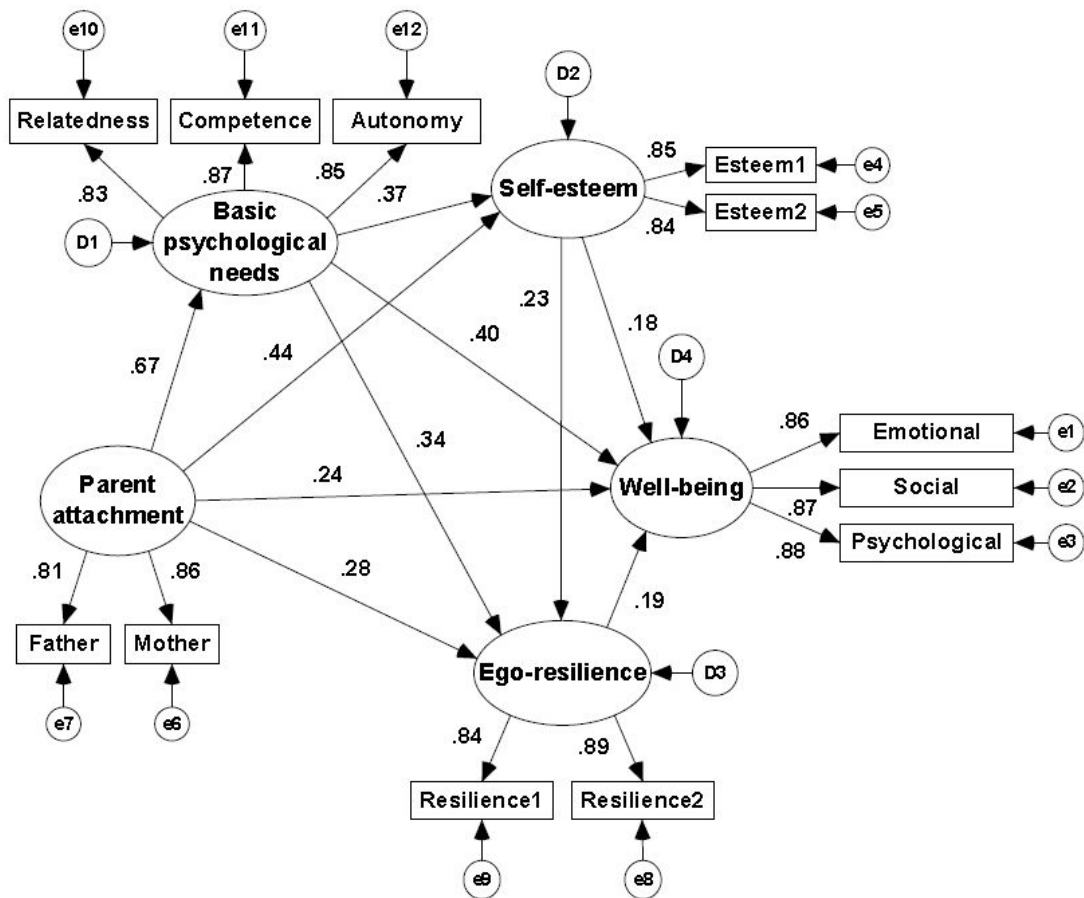


Figure 3. Estimate of Standardized Parameter for the SR Model

Table 1.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for Measured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Parent attachment	Father	1.00										
	Mother	.70	1.00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45	.50	1.00								
	Competence	.41	.47	.76	1.00							
	Relatedness	.48	.54	.70	.70	1.00						
Self-esteem	Esteem1	.49	.47	.47	.48	.50	1.00					
	Esteem2	.51	.50	.46	.49	.49	.72	1.00				
Ego-resilience	Resilience1	.50	.49	.45	.50	.49	.52	.42	1.00			
	Resilience2	.48	.49	.50	.55	.51	.52	.44	.75	1.00		
Well-being	Emotional	.55	.60	.58	.59	.61	.57	.55	.49	.54	1.00	
	Social	.53	.58	.55	.59	.63	.51	.53	.56	.59	.74	1.00
	Psychological	.48	.56	.60	.62	.61	.54	.55	.52	.60	.75	.78
Case	748	748	748	748	748	748	748	748	748	748	748	748
Mean	37.11	38.18	21.09	20.07	22.28	14.92	12.30	20.35	20.09	13.07	18.73	15.82
SD	6.70	6.78	4.20	3.99	4.07	2.58	2.21	3.39	3.45	3.67	5.87	4.35
Skewness	-.317	-.571	-.168	-.168	-.388	-.014	-.014	.040	-.091	-.811	-.361	-.362
Kurtosis	-.587	-.160	-.230	.068	-.048	-.040	-.731	-.231	-.209	.087	-.465	-.338

Table 2. Model Fit Indices for Measurement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7)	
								LO90	HI90
Measurement	34	44	178.67	4.06	.96	.97	.02	.05	.07

Table 3. Model Fit Indices for Structural Regression Model

Model	NPAR	DF	CMIN	NC	TLI	CFI	SRMR	RMSEA(.07)	
								LO90	HI90
SR Model.	34	44	178.67	4.06	.96	.97	.02	.05	.07

Table 4. Effects Decomposition for a SR Model of Well-being

Parameter	Standardized estimates(β)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Ego-resilience → Well-being	.19*	.19*	
Self-esteem → Well-being	.22*	.18*	.04*
Basic Psychological needs → Well-being	.55*	.40*	.15*
Parent attachment → Well-being	.75*	.24*	.51*
Self-esteem → Ego-resilience	.23*	.23*	
Basic Psychological needs → Ego-resilience	.43*	.34*	.09*
Parent attachment → Ego-resilience	.67*	.28*	.39*
Basic Psychological needs → Self-esteem	.37*	.37*	
Parent attachment → Self-esteem	.69*	.44*	.25*
Parent attachment → Basic Psychological needs	.67*	.67*	

* $p < .05$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문수백, 2009; Kline, 2011)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 (.06~.08)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평균 .5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정도를 검토한 결과, .65~.81 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

모델에 대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3.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측정모델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법을 통해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부합도 지수가 평가 기준을 양호하게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RESEA를 포함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

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구조회귀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를 <Figure 3>에 제시하였으며, 모수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4>를 살펴보면, 구조회귀모델의 전체효과 및 직·간접효과의 모수치들이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부모애착 모두 아동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와 부모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부모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애착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접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Table 4>에서 살펴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통해 아동의 안녕감에 간접효과($\beta = .04, p < .05$)를 가지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는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안녕감에 간접효과($\beta = .15, p < .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아동의 안녕감에 간접효과($\beta = .51, p < .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간접효과($\beta = .09, p < .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애착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간접효과($\beta = .39, p < .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애착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도 간접효과($\beta = .25, p < .05$)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의 관련변인인 아동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부모애착이 아동의 안녕감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이론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한 가설적 연구모델에서 각각의 잠재변인들이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와 간접적인 경로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가설적 연구모델이 실제자료와 일치하는지를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와 부모애착은 아동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높고 기본심

리욕구 만족이 높으며,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안녕감 역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적인 청소년들이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였다는 Park and Yoo(2003)의 연구결과와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밝힌 Kim(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자아탄력성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며 개인의 자아통제(ego-control)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이기 때문에(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나 역경, 혹은 위협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문제를 보이지 않고 건강하게 적응해 가며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아동의 삶의 질과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내적 긴장과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며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아동의 적응 능력인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결과이며 또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안녕감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연구한 선행연구들(Myers, 1992; Wubbolding, 1998)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능력이 높고 자신을 좋아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안녕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안녕감에 간접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는 아동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가질수록 다양한 환경적 요구에 따라 자아통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 역시 높아지며, 이러한 높은 자아탄력성을 가진 아동은 역경이나 문제 상황 속에서도 안정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며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는 아동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안녕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Sheldon et al., 1996; Reis et al., 2000)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는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높을 때,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과 자기 자신이 가치롭다는 신념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아동의 안녕감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령기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만족이 중요하며,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를 가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애착 역시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Hwang, 2010; Yoon & Choi, 2011)와 맥락을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애착이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아동의 안녕감에 간접효과를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탄력성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2010)의 연구와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Kim(201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애착은 안녕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지만,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통해서 그 영향력의 커진다는 기존 연구결과(Yoon & Choi, 2011; Armsden & Greenberg, 1987)와 부모애착과 아동의 안녕감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Hwang(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을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높고, 이를 통해 아동의 안녕감이 역시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과 안녕감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관계라는 중요한 환경적 맥락에서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안녕감에 중요한 선행조건임을 시사한다. 특히 양육에 있어서 아동기에 가장 친밀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동시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와 부모애착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높고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밝힌 Kwon(2003)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에 풍부한 적응능력을 갖는 자아탄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과 관계성이 회복탄력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힌 Kim(2010)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통해 자아통제의 조절능력을 내적인 조절과 유사한 형태로 내면화한 아동은 상황적 요구에 직면했을 때 내면화된 조절능력을 발휘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아통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높이는 것은 아동의 자기만족과 자기신뢰를 높이는 것이며, 나아가 아동이 상황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행동을 조절하는 융통성과 높은 적응력인 자아탄력성을 키우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부모애착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보다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는 Lee and Park(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자녀간 안정된 애착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줌으로써 특정한 위험 요인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저지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과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아동이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했다고 느꼈을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본심리욕구가 높아지며 이를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가 수용적이고 헌신적이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과 양육환경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애착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이 높고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욕구충족이 좌절되면 자기 가치감이 손상되어 불안정한 혹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는 Ryan and Deci(2000)의 연구결과와 부모애착 및 또래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Armsden and Greenberg(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간접

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되어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안정되기 시작하고 대체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유지한다. 그러나 11~12세경에 접어들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과 비교하게 되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다가 고등학교시기에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시기이다(송명자, 2008). 이처럼 아동후기는 변화에 대한 충동이 높고 이로 인한 안정성의 결여로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있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재형성될 필요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시기에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조직, 재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심리욕구나 부모애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된 부모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를 가지는 아동의 기본심리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부모는 아동의 애착수준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즉, 아동의 부모 애착이 낮을 경우 아동의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만족을 촉진하는 방식의 지도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부모애착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과 기본심리욕구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Hwang(2010)의 연구결과나 Wei et al.(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만족에 대한 욕구가 생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개인마다 욕구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의 욕구 강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욕구를 지지하거나 철회시켜버리는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욕구간의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보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기본심리욕구는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간의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인 가정에서 부모와의 안정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함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안녕감을 중심으로 종합해보면, 부모애착,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을 기술, 예측,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네 변인 중 기본심리욕구의 직접

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원인변인으로 설정한 네 변인 중 아동의 기본심리욕구가 아동의 안녕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이러한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아동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형성을 위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아동의 안녕감과 관련변인들을 탐색하고,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인들을 밝혀냄으로써 개별 아동의 특성에 맞는 안녕감 증진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원인과 결과변인 간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후속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원인변인으로 선정한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기본심리욕구 그리고 부모애착뿐만 아니라,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좀 더 복잡적이고 심층적인 인과모형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외의 다른 연령에게는 일반화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모든 잠재변인들은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아동의 자기보고식 평가 이외의 방법으로 측정된 연구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측정방법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에 관심을 두고 연구했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에 간접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아동의 안녕감과 관련변인들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러한 제언을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나 앞으로 이루어질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아동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다 안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REFERENCE

- 문수백(2003).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실제**. 서울: 학지사.
- _____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송명자(200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염유식 외(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국제비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총괄편. 보건복지부 보고서.
- _____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lock, J. & Bock, H.(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Y.: Basic Books
- Brown, T. A.(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Y.: Guilford Press.
- Deci, E. L., Ryan, R. M., Gagne, M., Leone, D. R., Usunov, J., & Kornazheva, B. P.(2001). *Intrinsic need satisfaction scale*. Unpublished questionnaire, Rochester: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Eo, J. K.(1998). *Influencing variables via path analysis on children's self-esteem of low-income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Han, H. A.(2007).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 adolescent'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 Harker, L. A. & Keltner, D.(2001). Expressions of positive emotion in women's college year book pict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sonality and life outcomes across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112-124.
- Hwang, A. R.(2010). *The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Master's Degree, Sungshin Woman's University.
- Kang Y. H.(2009). Exploring the constructs of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1(2), 159-177.
- Keyes, C. L. M.(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4, 1-32.
- Keyes, C. L. M., Shmotkin, D., & Ryff, D. D.(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07-1022.
- Kim, D. Y.(2010). *The influence of autonomy support of mother on ego-resiliency of children: mediating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Master's Degree, Ajou University.
- Kim, E. J.(2007).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539-555.
- Kim, H. O.(2010). *Effects of children's social network on self-perceived competence, ego-resili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octoral Dissertation Dongduk Woman's University.
- Kim, K. M.(2010).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disciplinary Style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Students in Middle & High school: As intermeditation with ego-resilience. *Youth Culture Publishes Forum*, 25, 40-74
- Kim, S. H.(2009). *The relations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self-esteem: The mediating role of adolescents' attachment toward parents and peer*.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 Kim, Y. H.(2010). The relation of daily stress and ego-resilience to the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287-307.
- Kline, R. B.(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Guilford Press.
- Ko, Y. N(2008). The relationship among father, mother, peer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

- 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6(20), 111-131.
- Koestner, R. F. & Veronneau, M. H.(2001). *Children's Intrinsic Needs Satisfaction Scale*. Unpublished questionnaire, McGill University, Montreal, Quebec, Canada.
- Kwon, H. S.(2003). *A study on the related variables upon sexual abuse female adolescent's 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 Kwon, J. E.(2002). *The relation of ego-resilienc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roblem-solving*. Master's Degree, Ewha Womans University.
- Lee A. Y. & Kim, J. Y.(2006). Relationships among meaning of life, body image, self-esteem, Altruism, and resilience i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7(2), 159-183
- Lee, E. M. & Park, I. J.(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and children's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7(1), 3-24.
- Lee, H. J., Lee, M. N., & Choe, I. S.(2008). Validation of a well-being scale of adolescent in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1), 301-315.
- Montemayor, R. & Eisen, M. (1977).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ion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3, 314-319.
- Myers, D. M.(1992). *The pursuit of happiness*. N.Y.: Morrow.
- Park, J. A. & Yoo, S. K.(2003). Relationship of resilience, spiritual well-being and parental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765-778.
- Park, N. S.(2005).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 25-39.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56-68.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J., & Ryan, R. M.(2000). Daily 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419-435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eligman, M. E. P.(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9).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heldon, K. M. & Niemiec, C. P. (2006).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331-341.
- Sheldon, K. M., Ryan, R. M., & Reis, H. T.(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270-1279.
- Verschueren, K. & Marcoen, A.(2002). Perceptions of self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in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rejected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0, 501-522.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kik. R. A.(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 Wubbolding, R. E.(1990). *A set of directions for putting and keeping yourself together*. Center for Reality Therapy.
- Yoon, M. S. & Choi, J. M.(2011). The influence of parent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olescence: moderate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55-78

접수일 : 2012년 03월 03일

심사일 : 2012년 04월 0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4월 30일